수직적 문법 걷어차고 공감·연대의 장으로

상상창고 숨 '도래할 풍경' 양극화·불평등 시대 성찰
산지천갤러리 공모전 '둘레' 3인 시선에 펼친 공생의 삶

상상창고 숨 '도래할 풍경'전에 참여한 정정엽의 '오후의 독서-불씨'

성별, 나이, 경력 따위의 경계를 지우고 공감과 연대의 장으로 한 발짝 내딛는 예술가들이 있다. 거기엔 여성이란 이름이 우뚝하다.

제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전 등을 꾸준히 이어온 상상창고 숨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에서 '도래할 풍경'전을 연다. 머지않아 다가올, 다가오길 바라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 작품들이 펼쳐진다.

고보연, 김경화, 김민정, 김선영, 김현수, 문지영, 박소연, 배효정, 변금윤, 신소연, 신소우주, 연미, 연정, 오현림, 이샛별, 정유진, 정정엽, 정하영, 홍이현숙, 홍진숙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화, 설치, 영상 등 저마다 다른 작업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를 돌아본다. '이어질 풍경'이란 이름의 특별전도 마련해 '한국 1세대 페미니스트 작가'로 불리는 박영숙, 윤석남, 정정엽, 홍이현숙 등 4명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상상창고 숨의 박진희 대표는 이 전시를 "예술가들의 평등한 삶을 향한 또 하나의 목소리"로 소개하며 "관람객은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통찰력 있는 예술가의 끝없는 질문, 성찰,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이어진다.

제주시 도심 산지천갤러리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시작된 공모 선정 기획전 '둘레'엔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자본과 권력을 중심에 놓지 않고 모두가 둥글게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지구를 꿈꾸는 3인의 작품이 놓였다. 수직적 문법을 걷어낸 통문 형식의 포스터에 공생적 관계를 다루는 전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땅의 시간' 등을 작업한 정민주는 현수막, 전단지, 벽지 등 인간의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는 물질들을 가져와 이면의 의미를 불러냈다. 강정 연산호 조사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수중 사진을 찍고 있는 최혜영은 막아내고 지킨다는 말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연산호' 시리즈 등 순간의 아름다움을 수집했다. 작가 자신의 몸을 매개로 한 수행적 퍼포먼스로 사회적 타자들의 목소리를 조명해온 홍이현숙은 '여덟 마리의 등대' 등을 출품했다. 이달 26일까지. 진선희기자

'서귀포와 이중섭' 오페라로, 뮤지컬로

도립 서귀포예술단 '이중섭' 오페라 버전으로 내달 공연
제주 출신 윤정인 극본·작곡 뮤지컬 '이중섭의 메모리'도

한국전쟁기 서귀포에 머물렀던 화가 이중섭(1916~1956). 기일(9월 6일)에 맞춰 '서귀포와 이중섭'의 인연을 기억하는 이중섭미술관 특별전이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엔 오페라와 뮤지컬 작품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립서귀포예술단이 제작한 창작오페라 '이중섭'이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2016년 제작된 오페레타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번 무대는 2019년 서울 공연에 참여했던 김숙영씨가 다시 한번 연출가로 나섰고 현석주씨가 작곡을 담당했다. 출연진은 김동원, 이재욱, 김유섬, 정혜민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로 이동호 도립 서귀포관악단 지휘자, 최상윤 서귀포합창단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관람료는 1층 1만2500원, 2층 1만원. 입장권 예매는 이달 14일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공연에 앞서 공식온라인채널 '창작오페라 이중섭'(https://tv.naver.com/operaleejungseop)에 접속하면 공연 연습 과정, 브이로그, 이중섭 작품 콘텐츠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앞서 이달 16~18일에는 총 5회에 걸쳐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뮤지컬 '이중섭의 메모리'를 공연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연 기획·제작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으로 국경을 초월한 이중섭과 아내 마사코와의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행복했던 서귀포 시절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냈다.

제주 출신으로 대구의 뮤지컬 전문 극단 맥씨어터를 이끌고 있는 윤정인 대표가 작곡과 극작을 맡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측은 "제주 방언과 일본어를 활용한 자막과 영상으로 극의 현실감을 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변명선의 '섶섬딸기는 파란'.

변명선 '섶섬딸기는 파란'전 오롯한 색 간직해온 생명들

몇 해 전 서귀포 앞바다 섶섬에서만 자란다는 섶섬딸기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게 창작의 동기였다. "고유의 경계선을 지닌 채 오롯한 색을 간직하며 살아낸 생명들에 온 마음이 갔다"는 변명선 작가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작품들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남원읍 신례리 바람섬갤러리에서 펼치고 있는 '섶섬딸기는 파란'전이다.

이 전시엔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회화 25점이 나왔다. 거기엔 한라산을 경계선으로 두고 그 남쪽에서 꿋꿋이 살아온 존재들이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그들이 뿜어내는 색감은 푸르고 또 푸르다.

'푸른 돌이 피는 동네'에는 천천히 물기를 먹은 초록돌이 표현됐다. '섶섬딸기는 파란'은 겨울눈이 올 때도 더러 푸른색을 간직했던 섶섬을 떠올리며 작업했다. '파란 그늘'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지점의 희미한 달의 끌림"이 있다. 제삿날 제주 여성들이 부엌에서 지내는 의례인 '여산부인의 식사'도 작업으로 기억했다. 전시는 이달 19일까지. 진선희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2)

말 타는 관리사

나는 조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엇비슷하게 내리막 진 목장길을 따라 산책을 나선다. 우리집 좌측 돌담과 접해 있는 말 목장의 말 한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담을 사이에 두고 기어코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꼼짝않고 내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말의 크고 투명하고 예쁜 눈에 반해 즉각적으로 고독이 느껴질 정도이다.

열 한 마리의 말을 기르는 이 목장의 주인은 서울 사람이고, 관리사는 말 운송기사 출신의 사십대 제주 남자이다.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리사가 말을 타고 목장 밖으로 난 마을 소로를 따라 어디까지인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목격하곤 한다. 나도 어쨌든 어려서부터 말을 좋아했고, 아직도 언젠가 내 집에서 말을 기르게 되리라는 믿음이 남아 있으므로, 하늘이 청명한 날 검은색 안장을 지우고 흰색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라도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에는 분명히 이끌리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다.

편한 점퍼 차림에 짧은 부츠만 신고 따각따각 말굽소리를 내며 말고삐를 편안히 쥐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조와로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마음의 텅 빈 전봇대가 서 있는 로타리를 돌아 조천읍 방향으로 꺾여져 사라진다. 중산간에서 말을 타고 바닷가 가까운 읍내로 내려가는, 거침이 없고 그러면서 연하고 매끄러운 그 모습은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해도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본질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자세 그 자체이다. 정말 훌륭한 정경이다.

아침 햇살에 젖은 숲을 끼고 귤밭 딸린 동네를 벗어나면 무적을 울리며 올라오는 상상의 배가 있을 것만 같고 마치 그 배를 마중하러 나가는 듯한 나의 아침 산책은 대흘리까지 이어지고 하루는 또 그렇게 어딘가로 벋어가고 있다.

먹이고 치우고 닦는 40대 남자 무어라 불러도 될 '한 마리 말' 가슴에 기른다면 헛됨 없으리

목장길을 따라 되돌아오며 나는 다시 말 관리사를 생각한다. 운동장만 한 목장에 사료를 던져 매일 말을 먹이고 저녁마다 고함을 질러 말을 모아 쇠막에 넣거나 마방에 똥을 치우고 톱밥을 깔며 말을 씻기고 닦아주는 일과 때론 혼자서 지게차를 몰며 창고에 드나드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리라. 어디엔들 왜 삶의 격류가 없으랴. 어느 한 곳에도 기댈 데 없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 말을 끌기 시작했다는 말 관리사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무엇이라고 불러도 되는 '한 마리의 말'을 가슴에 기르고 있는 희망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사실 어떤 것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도 괜찮을까. <시인>

장한철 표해록 청소년 백일장

애월문학회가 제10회 장한철 선생 표해록 기념 전도 청소년 백일장을 실시한다.

고전 해양문학의 대표작인 장한철 표해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이번 백일장은 초등 4~6학년 학생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주바다, 해녀, 장한철, 표해록을 주제로 한 시와 산문을 접수한다. 응모작은 10월 30일까지 이메일(momo3773@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제주음식영화축제

음식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6회 제주음식영화축제(www.제주음식영화축제.com)가 9월 11~17일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다.

영화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음식영화 상영, 영화감상평 이벤트, 착한 클릭, 슬기로운 식생활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짜였다.